

연중제 18주일

기도서 P. 404 C해

- 1독(전 도 1, 2, 21-23절)
- 2독(골 로 3, 1-5, 9-11절)
- 복음(루 가 12, 13-21절)

#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강론□



## 及其老也...戒之在得

### 이 순 성 신부

논어의 제씨(季氏)편 7은 “군자로서 경계해야 할 것이 세가지 있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므로 여색을 경계해야 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혈기왕성하니 싸움을 경계해야 하며, 노년에 들어서서는 혈기가 쇠퇴해지므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新譯 論語 南晚星 譯註 瑞文文庫 145. p. 305).”라는 공자의 말씀을 수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연제가 공자가 “人生七十代는 從心所慾하니 不逾規矩라”하신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비로소 제대로 알아 들을 수 있다.

인생노년이면 그야말로 스승이며 어른이다. 평범한 사건에 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은 거의 그르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무슨일이든지 욕심부리는 데르 마음이 따라가는데로 조금도 껴리는 것 없이 그것조차도 하나의 표준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예사이기 때문에 “노년에 들어서서는...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及其老也...戒之在得)”고 알아 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복음가운데 12장 15절의 첫부분에서 예수께서는 공자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온갖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러나 두번째 부분을 보면 공자와는 달리 예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 “사람이 제아무리 부요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산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자극을 주는 현실세태를 직관했을 때이다. 거부(巨富)앞에는 학식도 권세도 맥을 쓰지 못하는 세태(世態), 富라는 것이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러기에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타나 마지막으로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미끼로 유혹하려 하지 않았던가 (마태오 4, 1~12 참조)?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너의 생명과 재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의로운 목적지향 없이 재산축적에 필사적인 우리세대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 한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다. “이 미련한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네게서 떠나 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루가 12, 20)?”

결단성 있게 태도를 정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공자의 말씀같이 노년에 이르러서 겨우 탐욕에 조심하는 것보다 젊어서부터 탐욕에 조심하겠다는 결심을 함과 아울러 매사에 물질보다는 정신위주의 사언행위를 지향 할때 공자의 말씀을 슬기롭게 이해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혜롭게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진안천주교회 보좌신부)



### 더위에

### 더욱 건강하세요!

7월 17일 이후 문정현 신부님에 대해 물어오는 교형자 매들이 많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당시의 표정을 소개한 가톨릭시보를 인용해 본다.

<전주> 「17일중에 수감중인 신부들이 석방된다는 소문이 나돌자 천주교구 문정현 신부의 부모와 동생 문규현 신부, 그리고 관리국장 김영신 신부는 1·2진으로 나눠 새벽 4시와 6시30분에 각각 전주를 떠나 김해 교도소로 달려갔다.

교도소 정문 앞에서 5시까지 안타까이 기다렸으나 끝내 문신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모두들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평소 문정현 신부의 건강을 걱정해오던 교구장 김재덕 주교와 교구 성직자들은 한때 퍼졌던 석방 소식에 크게 기대를 걸었으나,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했는데, 문신부가 함신부와 함께 끝내 제외됐다는 소식에 크게 당황하는 표정은 엿볼 수 없었다.

이날 주교관에서 김해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던 교구 사제들은 문신부가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정의를 위한 운동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해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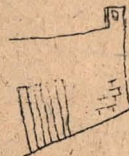
한편 천주교구 사목국장 정승현 신부는 옥중의 동료 사제를 생각하던 마음이 아프지만 “문신부의 석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는 바라고 싶지 않다”고 코멘트.

<서울> 「...서울 용암동 신자들은 『본당 신부님이 돌아 오신다는 희망으로 들떠 있었다. ...서울 명동 성모병원 에신 신현봉, 함세웅, 문정현 신부가 모두 석방되리라는 예상하에 입원실 3개를 비워두고 기다리기도 했다.

한편 교구당국은 인색한 석방조치에 실망한듯, 하면서도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던 탓인지 그저 멍뭇한 표정들이었다」.

작우지간 더위에 건강하시라고 두 손을 모우자.

## 숲정이 산책



다음조치를 기다리는 사람들

□ 성서교실 ⑬ □



### 데살로니카 전서

김 순 태 신 부

저자와 수신인 : 데살로니카는 지리적으로 에게해(海)의 테로매만에 연해있는 항구 도시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수륙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상업 도시로서, 주민은 회랍인, 유대인, 로마인들이 섞여 거주하였다.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으며(사도 17,1) 경건한 이방인도 이 회당을 사용했다.

사도 바울로는 2차 선교 여행 때, 유대인 회당에서 얼마 동안 설교하였다. 이 설교로 몇몇 유대인들이 개종하였지만, 큰 수확은 유대교의 예배에 참석했던 상당수의 외교인들의 개종이다. (사도 17,4). 그래서 바울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바울로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사도 17,5~9) 데살로니카 신자들과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다. 아테네에 돌아온(사도 17,15) 사도 바울로는 동행한 그의 애(愛)제자 디모테오를 다시 데살로니카 교회로 보내고(데살전 3,2), 자신은 고린토로 돌아와 머물게 되었다.

이 서간은 대부분 성서 주석 학자들이 바울로의 집필로 인정한다. 그러나 바오로, 홀마르크등은 이 편지의 중심적 신학 문제가 그리스도의 종말적 재림론이라는 이유로 바울로의 친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력하지 못한 학설이다.

집필장소와 연대 및 동기 : 사도 바울로는 주후 51년 여름부터 52년말까지 고린토에서 체류한 것으로 본다. 이 체류기간 동안, 대개 51년경 저술된 것으로 많은 성서 주석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 서간은 지금까지 전해오는 바오로의 서간 중 제일 먼저 저술된 것으로 보며, 전 신약 성서중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보고 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서간을 정전(正典)으로 인정하였으며, 마르치온과 무라토리 단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술 동기는 새로 창설된 교회와의 관계를 굳게 하고, 또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내용과 신학 : 이 서간은 바오로의 선교 활동과 그곳 창설 교회의와의 관계를 서술하며(1,2-3,8) 또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3,9-5,24). 이 서간에서 사도 바오로는 까다로운 신학적 논거보다 다정다감한 대화로써 신자들을 격려한다. 특히 그곳 신자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다(데살전 2,15-16). 또한 당대에 있어 큰 관심사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세말론에 대해 사도 바울로는 묵시문학의 표현을 빌려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고한다(5,6).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서간에서 세말의 어떤 시간적 계산이나, 세말 장면의 묘상 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이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을 중시하여야 하겠다. 이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데살전 4,17b).



### 주 님 의 음 성

임 점 레 (세시리아)

계곡을 끼고 도는  
서늘한 물줄기  
바다를 열고  
사근거리는 절월 내음 위에  
계절을 모르는  
눈(雪)이 내린다.

커다란 타원에 걸려 있는  
애기 중에는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시린 감정이 있고,  
스치기 어려운  
청포의 순결이 있고,  
기억을 새기는  
얼굴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프게 웃어야만 하는가.....

허탈한 불균형 속의  
어슬픈 균형을 익히며

마음 감겨지는  
정든 여인의 모습을 더듬는  
소경의 애뜻한 탄식 만큼이나  
시들고 마른 마음, 마음들.  
모래알 당구는 사막일지라도  
홍수가 휩쓸고 간 쓸쓸한 지역에도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의  
가슴에도  
온화하게 심어주는  
다함 없는 음성

나, 멀리 떠나고  
그대들 가버린다 해도

그분의 음성만은  
우리 곁에 머무르리라

(김계 천주교회)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 주 가 립 립 센 타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새로나왔다! 살학은수 보일리 ☆

☆특징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열전 100% 효력, 99% A.L인코트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복 총 판매점

###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함<각 가정에도 저렴한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 양지쪽 \*



## 아름다운 이야기

고운 석 (요한)

청년회의 일로 저는 직장근무가 끝나기가 바쁘게 꼭 만나야할 Y씨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던중 우연히 길에서 Y씨를 만났습니다. 첫마디는 웃음, 다음은 지나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Y씨는 저한테 수고한다고(사실 무능력자 인데) 겸손이나 함께 나누자고 해서 음식점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마터면(?) 묻혀버릴 J신부님의 숨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J신부님의 겸손한 생활은 모셔보았던 분들께서는 공인하는 일이지요. 현 사회를 보면 조그마한 일로도 일간지에 내서 특필로 그 미담을 알리고 또 장본인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중에 "오른손이 왼손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에 비하던 우리 주님의 아들들이 베푸는 숨은 미담은 그보다 몇천배나 많은 일을 해놓고도 없었던 것처럼 묻혀버리는 일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J신부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지나쳐버리기 아쉬워 이글을 씁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날 Y씨가 약간 즐기는 알콜 때문에 어느 X선술집을 들러 알콜을 마시고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그집 십팔구세로 보이는 접대부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너무도 달라서 불려다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나는 식의 질문으로 말문을 열고보니 서울 모성당의 교우라는 것을 알았고 그집에 오게된 동기는 친구의 폐업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내 형제이니까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심정에 J신부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Y씨 자신의 의사를 말씀 드렸답니다. 후일 그집에 찾아가보니 그녀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니 그녀의 정든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에 수속문하여보니 Y씨가 J신부님을 찾아 뵈던 날, 바로 J신부님께서 평복으로 갈아 입으시고(물론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였겠지요) 그 집을 찾아가 그녀와 함께 자리를 하시면서 그녀가 공식적으로 지은 빛을 사비를 드려 갚아주시고 어린 그녀가 밝은 앞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상이 J신부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혹 이글을 읽어보시고 접대부 하나쯤 구해준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고 반문하실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산다고 자부해보는 제자신 입으로만 지켜려보았지, 사실 얼마나 많이 남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보며 살아왔는가 제자신 깊이 반성하여 봅니다. 만약 제가 많은 제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J신부님의 아름다운 일이나, Y씨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볼 수조차 없었다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우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더 없이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요. 항상 주님의 은총을 받고 계시는 교우여러분! 다시 한번 J신부님께, 그리고 Y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많이 퍼지도록 기도하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행동으로 따를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정읍 천주교회 청년회장)

## 요심이 (209) 김병오



◇ 신장개업! ◇

### 다모아 양복점

황정규 (요섭)

이리시 창인동, 의산군청 앞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 태광사

(구 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주산반·부기반·경리실무반□

## 삼일 주산 경리학원

(국교부, 중고등부, 일반부)

정진경(분도)

☎ ① 1462

병무청 ↔ 구 법원 중간

□ 타자수리, 취업알선, 배월검정 □

## 뉴-타자학원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②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 육교영 중앙 시장동

(전화 ② 4577)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도산매  
세무서 지정업체□

## 봉천출판사

김정생(베드로)

전매청 오거리 ☎ ② 2669번



1. 전주교구 교리교사 하기 연수회 (8월 1-4일, 산내면 조개미)
2. 제3지구 청년 하기 수련회 (8월 1-4일, 고산, 회비 700원)
3. 제1지구 학생 연수회 (8월 1일-4일, 고창 선운사)
4. 전주교구 인성회 연수회 (8월 5-6일 <등록 5일 14시>, 가톨릭 센터)
5. 엄기봉 신부님 임관식 (8월 6일 <토> 오전 10시, 광주상무대 육군보병학교)
6. 여성 제 4차 꾸르실로 (8월 18일 오후 6시-21일, 가톨릭 센터, 대상-1,2,3지구 여성교우 <본당 신부님 추천>) ※ 선배 꾸르실리스타의 많은 참석과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7. 중·고등 학생 연합 제 8차 하기 수련회 (8월 11-13일, 고산면 고산천 고산본당 뒤)
  - 목적... 신앙심 강화, leader ship training, 대상... 각 본당 회장단 및 회망자, 참가비 1인당 400원 (기념품대 준비물... 미사 도구, 야영장비 일체, 자세한 내용은 중고연 공문 (77-19-4 참조 바람
8. 각 본당 모지 관리 위원님들께서는 모지사용료 미납금을 확인해서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대학생연합회 성지 순례 (8월 8-13일, 충청도 홍성, 예비소집... 7월 31일 오후 4시, 가톨릭 센터)
  - 방송안내... 문화방송 (MBC)... 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김진석 신부 방송
  - ...서해방송 (SBC)... 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이태주 신부 방송

(중앙)

전화 3651 /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 보좌 신부 김진석 / 사도 회장 이복석

1. 월례회 ① 사도회-31일 10시 공식미사 후, 강당
  - ② 어머니 합창단-4일 <목> 오전 10시
  - ③ 성심 부녀회-5일 <금> 어머니 미사후, 강당
  - ④ 상지회 (야유회 겸)-7일 <일> 공식 미사 후, 관촌 사선대
2.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마쳤읍니다
3. 미사때 모두 큰소리로 성가를 부릅시다
4. 교무금을 납부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10,051원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 사도 회장 조성호

1. 주일학교 특별교리 : 8월 1-13일, 오전 9-12시
  - 준비물... 성경, 어린이 미사책, 노트
  - ※ 부모님들 우리 귀여운 어린이들을 꼭 보내주세요
2. 교무금을 속히 납부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41,34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우현택 / 사도 회장 박장훈

1. 혈제회, 교리교사 단합대회 : 10시 미사후, 관촌 사선대
2. 하기교리 참가수 : 국민학생-130명, 중고생-60명 교사님들, 학생들 수고 많았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0,99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 보좌 신부 권박 / 사도 회장 박용홍

1. 재속 형제회, 청신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의 밤 : 오늘 밤 8시반, 파티마 성모님 모시고 마지막 밤 행사를 하오니 각 단체별, 개인별 꽃다발 초를 봉헌합시다
3. 첫 영성체 준비교리 : 8월 1-13일, 오전 9시부터
4. 예비자 면접 : 영세 제 2단계 받으신 예비자님들 8월 5일 오후 2-8시에 있으니 꼭 나오세요
5. 하기 수련회 : 교리교사 <8.1-4일>, 중고생 <8.1-3일, 지도자... 박요한(병숙), 윤테레사(혜숙)>
6. 탁구대 기증! 노벨라도(인석) 씨께 감사드립니다
7. 성 프란치스코의 프르치운꼴라 전대사! (8월 2일) 전대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① 오늘 성당방문, ② 주의기도, 사도신경, ③ 교황님 뜻대로 기도할것 단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한 교우야라 함
- 지난주 봉헌금 : 47,618원

(숲정미)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월례회 : 8월 7일 공식미사후, 사제관
2. 고등학교 쉼 회합 시간 변경 : 매 <토> 오후 2시 반으로
3. 유아세례, 누깁다 부녀회 : 공식미사 후
4. 「가장 거룩한 사랑」 성화상영 : 오늘 밤 8시 반
5. 공동체성가 연습 : 매주일 8시반, 전교우님들 꼭 나오세요
6.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 김귀권, 엄익봉, 배재철
- 지난주 봉헌금 : 68,39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 사도 회장 김용환

1. 여를 성경학교 : 8월 8-13일, 오전 9-11시반
  - ※ 첫 영성체 교리 : 8월 8-13일
2. 청년, 학생 성지 순례 및 수련회 : 8월 6-9일, 솔피 ~ 동백정, 참가비 (2,500원), 지참물(등산도구, 수영복)
3. 젊은이들의 광장 : <금> 밤 8시, 청년, 학생들의 참여를...
4. J.O.C 소개 : 8월 5일 밤 8시, 회합실(강사-김말따)
5. 새 성당 비품은 우리들의 힘으로 마련을...?
6. 신축헌금 신입 감사합니다 : 김동안 (3만), 김찬영 (5천), 총계 8,915,500원, 납부액 4,314,000원
- 지난주 봉헌금 : 41,285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 보좌 신부 김윤섭 / 사도 회장 유석중

1.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반
2. 제 3차 성지순례 : 오전 11시반(미반 버스 주차장), 천호공소 무명 순교자묘, 대상-이혼남녀
3. 예비자 영세교리 : <화, 수> 저녁 미사 후
4. 첫 영성체 교리 : 8월 1일부터 10일간, 오전 9시 시작
- 지난주 봉헌금 : 108,700원
- ※ 새성당 신축헌금 : 서교동-박정순, 김동호(각 1만), 이호근(3천), 초이나시오(5천) / 동교동-하치호, 김신덕(각 3만) / 전동-추원배, 장강우(각 10만), 최기순(1만) / 완산동-이풍림, 서중례, 송영순(각 1만), 김순이(3천) / 풍남동-임입남, 이병수(각 1만), 백락새, 정인수(각 5천) / 남노-최점순(5만), 황의등(2만) / 경원동-김남시(2만), 김은숙(5천), 이상순(3천) / 호자동-조귀례(5만), 익명(2천) / 기타-유예문(5천)
- 주계 416,000원, 누계 28,503,400원
- 현금 주계 350,500원, 누계 5,929,200원
- 금품주계 118돈